

사랑이 있는 푸른 우리마을



랜스 암스트롱과 함께한 - Tour De Korea!

삶의 가장 큰 가치, 사랑 나눔의 실천!!

굳이 시대적 요구가 아니더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며 한라에서 백두까지 전사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공사가 작년 창립기념일을 맞이하며 보다 깊은 사랑 나눔의 실천을 위하여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인연을 맺은 것은 저에게도 사랑 나눔의 의미를 일깨워준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공사가 후원 단체로 참여하고 재단에서 마련한 소아암 어린이 제주체험 행사를 통해 40여명의 가족들이 우리 공사에서 운영하는 중문골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신인안 모습으로 처음 타보는 골프카에 올라 광활하고 질푸른 잔디밭을 지나 지척거리에 마라도가 보이는 탁 트인 해안에 도착해 고래 찾기 체험에 나선 아이들은 버거웠던 투병의 고통은 다 잊은 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가슴 깊이 스며드는 나눔 실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는 것, 먼저 다가가 사랑을 전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일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꽃이 더 아름다울 수 있음은 꽃을 받쳐주고 있는 푸른 잎이 있기 때문이며 별이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건 하늘이 어둠을 마다하지 않고 까맣게 물들여져 있기 때문이지요. 행복은 이처럼 비우고 낮아질 때 가까이 다가오며 고요하고 아름답게 번져가는 것 같습니다.

환아의 치료에 매진하고 계신 부모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항상 당신들과 함께 진실된 사랑 나눔의 끈을 이어갈 테니까요. 오직 자식사랑 하나로 살아오신 당신은 주어진 인생을 극복해 나가는 진정한 승리자이십니다.



이 창규
한국관광공사 중문골프장 대표

생각조차 하기 싫은 2006년 1월..

2006년 1월 18일 잊지 않지만 잊고 싶고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은 그해 겨울! 백·혈·병이라는 커다란 먹구름이 딸과 우리 가족의 운명 속에 스며들었다. 백혈병이 무엇인지, 어떤 병인지 전혀 모르던 우리 가족에게 그렇게 다가온 것이다. 여러 증상이 있었지만 알아채지 못했고, 단순한 감기로만 여겨 여기저기 병원을 찾아다녔던 터라 진단 받고 나서 '좀 더 일찍 발견했다더라..' 하는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한동안, 아니 거의 반년은 정신을 못 차렸다.

구급차를 타고 천안에서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로 수혈을 하며 올라왔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미연이는 엔젤 병동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관해치료 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다. 답답함, 어리둥절함을 느낄 겨를도 없이..

관해 도중 딸은 5일 동안 사경을 헤매었다. 진단 받았을 때보다 더 가슴시리고 혼돈스러운 하루하루였다. 경기를 하여 산소마스크를 쓰고 손가락엔 무엇인가 끼워졌다. 경기에서 깨었지만 헛소리에, 눈은 사람의 눈빛이 아닌 그 자체였다. 헛것을 듣고 방향 감각도 없었다. 대소변을 받고 2차 감염의 위험 속에 항문과 질을 소독하던 중 항문이 열린 것을 발견했다. 죽음이 임박해 오면 항문이 열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두려움에 기도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하나님 데려가시려거든 편안히 데려 가시고 살리실 거라면 영원히 건강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통한 간절함이 전해진 건지, 우리 딸 미연이는 조금씩 처음 보다 나아지는 모습이었다. 종이 접기를 좋아하던



미연이는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접고 또 접어 본다. 그렇게 우리는 남들보다 늦은 관해를 마쳤고 골수이식이라는 큰 산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병원에 있어보니 좋지 않은 것만 눈에 띈다. 골수이식을 하고 잘 지내는 아이들보다 이상이 생겨 힘들어 하는 아이들만 보게 되니 불안함이 커지고, 골수이식 자체를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란 걸 알면서도 약물 치료만으로 끝나길 바라고 또 바랬다.

한겨울 눈발이 휘날리던 날 난 미친 여자처럼 한여름 옷에 맨발 슬리퍼 차림으로 머리에는 위생 모자를 쓰고 예뻐드릴 곳을 찾아 다녔다. 정장 차림의 교회 신도들이 나의 초라한 모습과 이상한 행동에 흠뻑 흠뻑 결눈질하는 모습이 느껴졌지만 내겐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하였던가.. 나의 마음이 그랬다.

우연인지 운명인지 딸은 그렇게 약물 치료만 하게 되었다. 어찌나 감사한지! 얼마나 들어보고 싶던 '유지'란 단어인가.. 유지 1차를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다. 지금은 학교도 제법 잘 다닌다. 친구들과 과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 잠이 없는 미연이는 보통 아이들처럼 정상 수업을 다 받고, 그것도 부족해 쉬라고 해도 밖에 나가 온 에너지를 쏟는다.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어찌나 감사한지..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영원히, 미연이 뿐 아니라 치료받고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시는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사람보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씩씩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사랑해~ 서 미 연!!

9살 미연이는 2006년 급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진단받고 현재 유지치료 중에 있습니다. 새로 자란 머리카락이 너무나도 멋진 미연이는 늘 웃는 얼굴의 미소천사입니다.^^

조혈모세포이식 및 기증안내 & MBC 수혜자 부담금 지원 안내

1. 조혈모세포란 무엇인가요?

조혈모세포는 혈액성분(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만드는 어머니 세포로, 우리 몸을 지탱하는 뼈 속의 골수에 많이 존재하며, 말초혈액과 태반에도 존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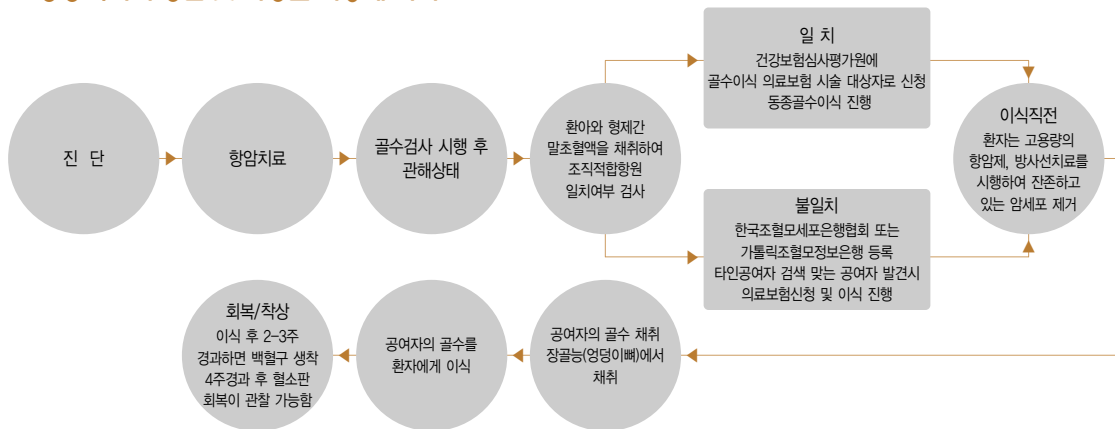
2. 조혈모세포이식이란 무엇인가요?

조혈모세포이식은 병들어 있는 환자의 골수를 대량의 항암제 및 방사선을 통해 제거한 다음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넣어주어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흔히들 알고 있는 골수이식을 포함합니다.

3. 조혈모세포이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1) 동종이식
골수에 생긴 백혈병이나 골수기능이 정상이 아닌 재생불량성빈혈 등에서 환자의 골수를 없애버리고 건강한 다른 사람의 조혈모세포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골수를 주는 공여자가 형제나 가족인 경우는 '혈연이식', 모르는 사람인 경우는 '비혈연이식'입니다.
- 2) 자가이식
뇌종양, 신경모세포종 등에서 기존의 항암제보다 훨씬 대량의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통해 암세포를 박멸하고 이에 수반되는 골수 기능 저하를, 미리 채취하여 냉동 보관해 두었던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이용하여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 3) 제대혈이식
조혈모세포의 근원으로서 골수가 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태반과 탯줄에서 채집한 혈액, 제대혈을 골수대신 공급하는 이식 방법입니다.

4. 동종이식의 방법 및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5. 제대혈의 채취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① 산모나 보호자로부터 제대혈 채취 허락서를 받는다.
 - ② 신생아 분만 시 산모의 몸속에는 태반과 탯줄이 남아 있게 되는데 먼저 탯줄을 소독한다.
 - ③ 중력에 의해 흘러내리는 혈액을 채취하거나 주사기로 제대 정맥을 찔러 제대혈을 채취한다.
 - ④ 태반이 완전히 몸 밖으로 나오면 태반에 남아 있는 혈액까지 채취한다.
 - ⑤ 받아들인 제대혈은 실험실로 가져가서 냉동 보관을 하기 위한 과정을 거친다.
- ※ 신생아나 산모에게 빈혈이 생기지 않을 뿐 아니라 건강에 거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조혈모세포를 얻을 수 있다.

6. 조혈모세포(제대혈) 기증을 신청하거나 조혈모세포 기증자를 찾을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 1) 조혈모세포 기증
 - ▶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02-590-1149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02-737-5533 ▶ 대한적십자사(혈액수혈연구원) 02-3210-0331
- 2) 공여 제대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대혈은행
 - ▶ 메디포스트 <http://www.medi-post.co.kr> 031)2722-6866 ▶ 차병원 제대혈은행 <http://www.icord.com> 080-561-3579
 - ▶ 부산경남지역제대혈은행 051)240-5553 ▶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http://www.chscb.com> 02)590-1222
 - ▶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 공여제대혈은행 <http://www.allcord.or.kr> 02)840-2714 ▶ 삼성서울병원 제대혈은행 02)3410-2674

위 기관들 중 현재 다니고 계신 산부인과(병원)와 협력이 되어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출산병원에 제대혈기증에 대해 문의해 보세요. 단, 삼성서울병원 제대혈은행의 경우, 해당병원 분만자에 한해 받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 안효섭·김순기, "소아암", 대한고과서주식회사
국훈·조빈, "조혈모세포이식",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이식시, 수혜자 부담금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

재단에서는 비혈연 조혈모세포이식 및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시, 조혈모세포은행으로 송금되는 '수혜자 부담금'에 대한 지원사업을 2007년 6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시행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지원대상** : 만 19세 미만의 소아암 및 재생불량성빈혈 환자로, 향후 3개월 내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할 자
(단, 공여제대혈)가 확정된 상태에서 신청 가능)
- ▶ **지원금액** : 최고 1,000만원(이식종별에 따라 차등 지원)
- ▶ **지원절차** : 의뢰(부모님 또는 각 병원 사회사업실/의료진) → 신청서류접수 → 1차 서류심사 → 상담 및 지원평가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 및 사후관리
- ▶ **문의 및 접수처** : 재단 사무국 02-766-7671~3 / 각 우체국 헌사랑의집(서울, 신촌, 대구, 부산, 전남)

※ 본 사업은 2006 MBC '어린이에게 새생명을'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Tour De Korea에서 만난 성우씨!!

김 성 우

1985년 2월 9일 생
1988년 3월 악성림프종 진단
1992년 9월 치료 종결

현재 건강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4학년 재학 중



2007년 9월 1일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암을 이겨내고 투르 드 프랑스에서 7연패를 달성한 랜스 암스트롱과 함께하는 Tour De Korea 개막식 현장에서 완치자 성우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맑고 선한 눈망울을 가진 성우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Q. 성우씨, 아주 어린나이에 치료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때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A. 제가 4살 때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프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건강한 아이였어요. 한창 몸이 근질근질할 시기라서 손 짚고 옆 돌기를 연속으로 하고 다닌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다가 부딪쳤는지 머리에 작은 혹이 하나 생겼어요. 혹이 가라앉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날이 갈수록 혹 옆에 또 다른 혹이 생기고 또 다른 혹이 생기며 점점 늘어 가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종합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악성림프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어린 나이에 진단을 받았기에 심적인 동요 같은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병실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 때문에 매우 답답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음은 밖에서 뛰어 놀고 있는데 실제로 몸은 병원 안에서 주사 바늘을 꽂고 누워 있어야 했죠.

Q. 치료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성우씨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무엇인지, 또한 그 가운데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사람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A. 치료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먹고 싶은 음식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대부분은 환자가 멀리해야 하는 인스턴트 음식 아니겠어요? 소시지, 햄, 라면 등등 먹고 싶은 것들은 넘쳐났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거의 없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병원음식은 싱겁고 맛도 없고 해서 어머니와 많은 실랑이를 벌였던 기억이 납니다.

음식과 더불어 힘든 기억 하나는 인턴 선생님께서 척추주사를 놓다 신경부상을 건드려, 6개월 동안 하체마비가 와서 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너무 아파서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와서 걸을 수 없는 다리를 다시 걷게 만들어준 분, 바로 어머니 이십니다. 저는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몸을 돌려 굴러다니며 방안을 돌아다니는 게 고작이었어요. 거실로 나가고 싶을 때에는 문틈에 대고 어머니를 불러야 했고, 화장실이 가고 싶을 때면 아기용 좌변기를 가져다 주셔서 불일을 해결하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하루 빨리 다시 걷게 하기위해 날마다 잠들기 전 30분씩 재활 훈련을 해주셨어요. 제가 누워있으면 제 다리를 잡고 자전거 타듯이 빙빙 돌려 주셨지요. 낮에는 포대기에 싸 업고 병원치료 받으러 가고 밤에는 매일같이 다리를 주물러 주셨던 어머니, 어머니의 보살핌에 힘입어 저는 6개월 만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섰을 때의 기쁨이란... 어린 저로서도 매우 신났어요. 어렸을 때는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어머니의 보살핌들이 성인이 되어 되새겨 보니 정말 엄청난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이 기회를 통해 어머니께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Q. 치료가 끝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또, 미래에 대한 계획도 궁금합니다.

A. 저는 활동적인 것을 좋아해서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동아리부터 가입했어요. 그 중에서도 연극 동아리가 저의 관심을 끌어서 열정을 쏟기 시작했죠.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 2005년도에는 전국대회에도 나가고 팀 은상과 함께 개인 특별상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대학교 4학년 2학기를 맞이하여 졸

업반 선배가 되었어요. 처음엔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고민 들어주는 것을 좋아해서 들어오게 된 심리상담치료학과였는데 학년이 올라가고 배우는 것이 많아질수록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졸업할 하게 되면 취업 보다는 대학원 진학을 할 생각입니다. 학교생활 외에도 완치자들의 봉사 모임에 가입하여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 지금 치료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방학 때는 단원들과 함께 한라산 백록담을 정복하는 등 도전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귀여운 여자친구가 있습니다.(으하하하) 저보다 두살 어린 여자 친구는 학과 후배이자 동아리 후배예요. 여자친구가 신입생으로 들어왔을 때, 따뜻한 마음에 끌려서 고백하게 되었어요. 곧 있으면 150일 정도 되겠군요. 우후후!!

Q. Tour De Korea 개막식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셨는데요, 참가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A. 암으로 인해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도 그 힘든 싸이클 경기를 7연패 하는 등 인간의 한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랜스 암스트롱이 내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익숙하지 않은 싸이클이었지만 단번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집으로 도착한 싸이클은 제가 타기엔 땅에 발이 닿지 않아서 바둥바둥 거렸죠.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형은 그냥 참여하지 않으면 안되겠냐고 이야기 했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랜스 암스트롱에 관한 기사를 읽고, 다시 한 번 해보자라는 다짐과 함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굵이 약 8센티 정도 되는 키 높이 운동화를 구해오셨어요. 그것을 신으니 간신히 땅에 발이 닿았죠. 행사 당일 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도 되었지만 같은 완치자분들

이 잘 챙겨주셔서 든든하기도 했어요. 막상 한 바퀴 돌아보니 정말 재미있었어요. 랜스 암스트롱도 직접 옆에서 보고 헬멧에 싸인까지 받을 수 있어서 아주 뿌듯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다른 친구들도 힘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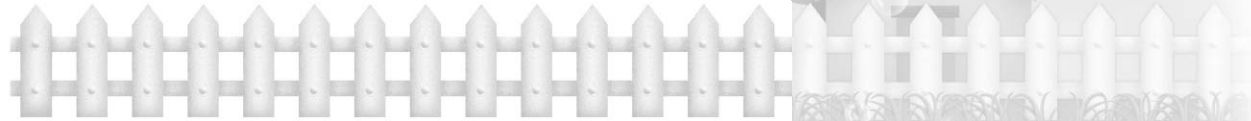
Q. 네에, 정말 멋지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진단을 받음으로써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면 병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컴퓨터나 게임 같은 것이 병실에 없어서 학 종이로 학을 접거나 빨간 풍선을 높이 통통 튕기며 노는 것에 온 정신을 집중했던 기억이 나요. 즐거워하는 만큼, 치료의 아픔은 잊을 수 있었죠. 치료를 마치고 난 후에는 어느 아이들과 똑같이 건강한 삶을 사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과거는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미래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힘내세요~화이팅!!



◀ 여자친구와 다정하게 안кет!

헌사랑의 집에서는...



부산 우체국 헌사랑의 집

제2회 대학체험 '나의 꿈을 찾아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아암 환자의 꿈을 찾아주기 위한 뜻 깊은 행사가 부산 우체국 헌사랑의 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랜 치료 기간으로 인해 자신의 꿈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우리 아이들.. 치료 중에 있는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은 멀지만 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완치율로 소아암 환자의 치료 후 사회 적응과 미래에 대한 문제는 눈앞에 닥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소아암 환자 대학체험 '나의 꿈을 찾아서'는 소아암 환아들이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미래에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험을 심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어 올해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본 행사에서 아이들은 의사가 되어 혈액 채취, 봉대감기, 심폐소생술, 단순 봉합, 신경학적 검사,



L-tube삽입 등 신기한 체험을 하기도 하고, 처음 가보는 학교 내 비행기(동주대학교 항공운항과 체험)에서 항공운항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기내식습을 하며 스튜어디스가 되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랜드호텔에서의 파티쉐 체험, 사진사가 되어 암실작업 및 스튜디오 촬영을 하였던 경험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들로 자리 잡았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환아들은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막연하게 생각해보던 '꿈'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의 경험이 좋은 기회가 되어 이 아이들이 어느 자리에서건 최선을 다하며 건강하게 맘 흘리는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각 대학 교수님과 자원봉사자, 그랜드호텔 관계자분들, 또한 본 행사를 후원해 주신 (주)휴니드테크놀리지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미경 가모클리닉" 감사합니다~

올해부터 부산지역에서 가발을 후원해주시는 업체가 생겼습니다. 바로 연산동에 본점이 있고, 중앙동에 새로 오픈한 '박미경 가모클리닉' 이랍니다.

벌써 세 명의 아이들이 가발을 제작했고, 대기 중인 친구가 있을 정도로 그 인기는 뜨겁습니다. 새로 오픈하신 곳을 직접

찾아보았는데 사장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 주시던지... 꼼꼼히 챙겨주시는 사장님과 부사장님 덕분에 정말 예쁜 가발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두피 관리만 잘 하면 다시 모발은 날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며 힘을 불어넣어 주신 사장님, 사진 찍기를 완강히 거부해서 사진으로 담아 오진 못했지만, 마음만큼이나 아름다우셨답니다. ^^

두 분 덕분에 이제 우리 아이들 머리카락 때문에 속상해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 박미주 · 이정민)

전남 우체국 헌사랑의 집

새 단장 마친 전남 헌사랑의 집으로 놀러오세요~



지난 7월 13일, 새롭게 단장한 전남 헌사랑의 집을 기념하기 위한 집들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심터를 예쁘게 만들어 주신 자원봉사자분들, 심터의 주인인 환아가족들, 항상 걱정하고 관심 가져주시는 화순전남대병원과 화순 우체국 관계자분들이 함께 모여 맛있는 점심식사도 하고 멋지게 변신한 헌사랑의 집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방문하실 때마다 헌사랑의 집은 조금씩 조금씩 아름답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작품으로 변

신한 게시판, 마치 숲속에 온 듯한 갤러리방, 동네의 명물이 된 멋진 외벽 담장, 꽃들이 만발하고 운치 있는 조형물과 의자 등으로 아름답게 변신한 정원까지...



약 두 달여 동안 고생해 주신 자원봉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회복지사 정옥 · 소상미)

방문 학습지도 신청하세요~!!

재단에서는 자원봉사 선생님이 집으로 방문하여 환아 개인별 수준에 맞추어 학습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습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낮은 면역력, 거동불편으로 인해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환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소아암 환아 가족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 재단사무국/서울 우체국 헌사랑의 집 ☎ 02)766-7671~3
신촌 우체국 헌사랑의 집 ☎ 02)363-7671
부산 우체국 헌사랑의 집 ☎ 051)244-7677

사랑이 모이는 곳...

▶ KRA 한국마사회 기금



KRA 한국마사회는 공익성 기부금인 '농촌사랑기금' 2,000만원을 재단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농촌사랑기금'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개발지원 및 소아암 환자 가족 활동비 지원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한국마사회의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소아암 어린이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소중히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제2회 소아암 어린이 가족 제주체험 - 푸른바다, 희망충전



소아암 환자 가족의 스트레스 경감 및 치료의지 향상을 위해 9월 11일부터 2박 3일간 제2회 소아암 어린이 가족 제주체험 '푸른바다, 희망충전'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금번 행사는 제1회 행사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사장대행 강광호), (주)대한항공(회장 조양호), (주)호텔신라(대표이사 성영목)의 후원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해마다 '사랑의 헌혈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는 제주체험 현지 진행과 함께 중문골프장 관람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였고, 지난 13년 동안 매월 소아암 어린이 생일잔치 후원을 해 온 (주)호텔신라에서는 소아암 어린이 가족에게 편안한 숙소를 제공하였습

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정석비행장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제주 양복항공권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2박 3일 동안 한국관광공사의 배려로 제주도 설명과 함께 시원하고 멋진 중문골프장 체험, 아기자기한 테디베어 박물관, 너무나도 투명한 우도 바다 체험, 아이들에게 파일럿의 꿈을 실어준 대한항공 정석 비행장 체험, 제주신라호텔에서의 편안한 휴식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에게 제주도에서 완치의 희망을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신 대한항공, 한국관광공사, 신라호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2007 Tour De Korea



2007년 9월 1일, 암을 이겨내고 투르 드 프랑스에서 7연패를 달성한 랜스 암스트롱과 함께 Tour De Korea 개막퍼레이드에 참여한 완



치자 조정환씨, 김성우씨와 환자 김현주 어머니, 안재현 아버지, 조강산 어머니, 최지우 아버지, 최수민 아버지, 엄효식 아버님과 형병욱 자원봉사자님. 이 멋진 분들에게서는 가을을 알리는 비가 많이 내린 날이었지만 치료중인 아이들의 완치를 기원하며, 빗속을 뚫고 거침없이 10KM의 거리를 달렸습니다.

이 의미 있는 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랜스 암스트롱의 소아암 어린이 지원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의 완치를 기원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아암 어린이의 완치를 기원하며 빗속을 질주해 주신 아홉 분의 주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제7회 완치기원 연날리기 "나을 수 있어요! 날 수 있어요!"

지난 9월 1일, 제7회 완치기원 연날리기 "나을 수 있어요! 날 수 있어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가을을 재촉하는 비로 인해 아쉽게도 한강의 선상카페 안에서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가을비로 인해 연을 직접 하늘 높이 날리지는 못 했지만, 참가하신 가족 모두의 마음속에 완치를 기원하는 연을 높이 훨훨~ 날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선상 안에서 가족 모두 함께하는 즐거운 레크리에이션과 맛있는 점심식사 또한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될 것입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페이스페인팅, 차량운행, 사진촬영 자원봉사를 해 주신 여러분들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행사를 후원해 주신 LG전자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비가 왔지만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제7회 소아암 어린이 형제캠프 "우리가 만드는 세상"

지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동안 전남에 위치한 금호화순리조트에서 제7회 소아암 어린이 형제캠프가 열렸습니다.



SBS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아픈 형제의 병에 대해 알아보는 소아암교육, 서로의 경험과 느낌을 공유하는 집단상담프로그램, 신나는 물놀이, 레크리에이션, 나만의 티셔츠 만들기 등을 통해 아픈 형제와



가족에 대한 이해도 키워보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캠프에 참석한 아이들, 스텝 모두 흥뻑 정이 들어 캠프가 끝나고 헤어질 때 너무나 아쉬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형제캠프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며 캠프 내내 도움을 주신 자원봉사자분들과 행사를 후원해주신 SBS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소아암 어린이 미술치료 가족캠프

지난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 소아암 어린이 미술치료 가족캠프 "가족, 그 사랑의 울타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미술치료를 받았던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 40여 명이 함께 하는 자리로,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남이섬에서의 오붓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1박 2일간 진행된 본 캠프가 힘겨운 치료를 이겨내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사를 후원해 주신 우정사업본부와 캠프에 함께해주신 소아암 어린이와 그 가족들, 미술치료사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어린이 성교육 뮤지컬 관람



절기상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가을바람이 불어온다는 처서인 8월 23일,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사의 후원으로 소아암 어린이 가족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성교육을 재미난 극으로 보여주는 뮤지컬 '엄마는 안 가르쳐줘'를 관람하였습니다. 재미있는 노래와 율동, 그리고 교육이 함께 어우러진 뮤지컬 관람은 우리 아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관람 후 맛있는 스파게티와 피자도 먹었답니다. 값진 시간을 선물해 주신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전기신문 연재안내

전기인들의 대표 신문, 전기신문에 소아암과 관련된 기사가 2007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주회 게재되고 있습니다. 소아암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을 바로 잡기 위한 '소아암 진실 혹은 거짓', 소아암도 완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소아암 완치자 인터뷰', 소아암 가족의 어려움 등에 대한 기사와 함께 후원자 모집 내용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소아암 환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신문에 지면을 내어주시는 전기신문과 한국남동발전(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징검다리”를 건너 만난 친구들

대학 입학 후 소아암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징검다리”라는 소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는 저였기에 망설임 없이 소모임에 가입하게 되었고, 매주 화순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소아암 아이들과 함께하는 미술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매주 다양한 미술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즐거움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손재주가 없는 터라 미술프로그램을 준비해 가는 저의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걱정과는 다르게 작은 만듦기에도 아이들은 무척 좋아해 주었고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미술프로그램 시간에 간혹 치료시간과 겹쳐 도중에 치료를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가기 싫다며 울기도 하며, 모두들 처음과 다르게 점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에 주사 바늘을 꽂고 있어서 스스로 만듦기를 완성해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힘든 치료 속에서도 자그마한 손으로 하나둘씩 만들어 가는 모습은 저에게는 감동까지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저는 오히려 아이들을 통해 배워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인지 봉사를 끝마치고 나오는 발걸음은 즐겁고 뿌듯하였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뜻 깊은 형제 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형제캠프 첫째 날 아침, 광주역에서부터 소아암 환아 형제들과의 만남이 시작 되었습니다. 들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괜히 제가 더 설레고 좋았습니다. 첫날부터 아이들은 아무런 거리감 없이 “선생님~”하면서 다가와 주었기에 편한 언니, 누나처럼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정말이지 프로그램 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습니다. 특히 물놀이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형제캠프에서의 모든 프로그램이 알차고 뜻 깊었지만 소아암교육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소아암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아픈 형제에 대한 작은 마음도 갖고 있었지만 하루빨리 완치 했으면 하는 따뜻하고 간절한 마음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2박 3일간의 형제캠프를 무사히 마치고 헤어지는 시간이 되자, 모두들 아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손을 고티움 잡고 “선생님 내년에도 또 봐요” 하면서 미소를 보내 주던 친구들을 보며 제가 더 헤어지기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과 정말이지 뜻 깊고 즐거운 캠프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형제캠프는 이 무렵까지만 했던 여름방학 중 저에게 가장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힘겹게 소아암과 싸우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한 치료를 통해 완치하는 그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친구들의 밝은 미소를 볼 수 있는 그날을 기억하며..... 친구들 파이팅 ♥



전남 우체국 헌사랑의 집 자원봉사자 송미화

♥ 특별기금 지원 환아 (2007. 6 ~ 2007. 8) ♥

▶ MBC '어린이에게 새생명을' 기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 1) 이식시, 수혜자 부담금
 임수아(금성림프구성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전남) : 1,000만원
 최민재(골수이형성증/서울대학교병원/경북) : 1,000만원
 신동수(재생불량성빈혈/서울대학교병원/서울) : 1,000만원
 박진우(금성림프구성백혈병/영남대학교병원/대구) : 800만원
 박재훈(재생불량성빈혈/부산백병원/경남) : 690만원
 양다민(금성림프구성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경북) : 1,000만원

- 2) 재발 치료비
 배중진(금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 300만원
 서다은(금성림프구성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전남) : 812,930원
 김연수(망막모세포종/세브란스병원/충남) : 300만원
 황성민(금성림프구성백혈병/상성서울병원/대구) : 300만원

▶ 우체국 헌사랑 기금 - 각 300만원

- 박찬규(금성골수성백혈병/상성서울병원/충북)
 강성호(금성골수성백혈병/세브란스병원/서울)
 정진호(금성골수성백혈병/상성서울병원/충남)
 조성범(금성골수성백혈병/서울아산병원/서울)
 김재휘(금성림프구성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울산)
 송병규(활막육종/경성대병원/경남)
 손광기(골육종/원지력병원/전남)

▶ 차카게살자 기금

- 박찬규(금성골수성백혈병/상성서울병원/충북) : 500만원

▶ 삼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기금

- 박송희(신경모세포종/부산백병원/경남) : 500만원
 박수민(금성골수성백혈병/서울아산병원/대구) : 8,576,483원

▶ 금오아시아나 기금 - 각 100만원

- 배민성(악성림프종/부산백병원/경남)
 박수희(수모세포종/상성서울병원/경남)
 신유리(금성림프구성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전남)
 이소연(금성골수성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전남)

▶ 토탈소프트뱅크 기금

- 김재휘(금성림프구성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울산) : 200만원
 김바림(뇌종양/부산백병원/울산) : 100만원

▶ 포스코건설 기금

- 나경민(신경모세포종/상성서울병원/경기) : 320만원

▶ 휴니드테크놀러지스 기금 - 매월 30만원(12개월)

- 라중홍(금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아산병원/서울)
 어정윤(뇌종양/서울아산병원/전북)
 강성호(금성골수성백혈병/세브란스병원/서울)

▶ SBS 기금 / 서울대병원 지정 기부

- 주우연(금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부산) : 1,000만원
 최민재(골수이형성증/서울대학교병원/경북) : 500만원
 한우현(금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대전) : 500만원
 신동수(재생불량성빈혈/서울대학교병원/서울) : 1,000만원
 이은혜(재생불량성빈혈/서울대학교병원/경기) : 1,000만원
 김민형(신경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전북) : 1,000만원
 김민호(금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제주) : 2,586,000원
 정도혁(연소형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 1,000만원
 박은우(금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 1,000만원
 이인희(림프종/서울대학교병원/경기) : 500만원
 서보국(악성림프종/서울대학교병원/전남) : 500만원

▶ 신한 헬로키티 아름다운 카드



신한카드에서는 소아암 어린이를 후원할 수 있는 기부전용 카드 '신한 헬로키티 아름다운 카드'를 출시하였습니다.

'신한 헬로키티 아름다운카드'를 사용하시면 아름다운 포인트가 적립되며, 이 포인트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실 때 마다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를 도울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혜택 : 기부전용 포인트 아름다운 포인트 적립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후원
스타벅스 사이즈 업그레이드, 주유 할인 등

또한, 2004년 출시된 신한카드사의 사회공헌 카드의 원조

신한 아름다운 카드의 나눔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용 시 결제액의 0.5~0.8%의 아름 포인트가 적립되어 고객이 원하는 기부처에 기부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기부 전용카드인 신한 아름다운 카드!

포인트 기부만이 아닌 직접 카드 결제를 통해 소아암 어린이를 후원할 수 있는 기부 방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단 가족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후원방법

1. http://www.arumin.co.kr 접속
2. 메인 페이지 상단 '기부네트워크' 클릭
3. 기부처 안내 클릭
4. 아름다운 기부처 검색창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입력
5. 기부하기

▶ KT 집전화로 희망을 거세요



[KT 집전화로 희망을 거세요] 캠페인은 2007년에도 계속됩니다.

내 작은 도움이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일 일까요? KT 캠페인 '집전화로 희망을 거세요'에 참여하시면 집전화를 사용할 때마다 요금의 일정액이 적립되어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희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 신청방법

1. 무료 전화 1516으로 전화하기
2. 생명전화 중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선택하기

▶ 롯데닷컴 - 희망클릭 이벤트



2007년 6월로 후원 종결 예정이었던 롯데닷컴은 2007년 말까지 (주)

롯데닷컴에서는 '희망클릭' 이벤트를 통해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롯데닷컴 홈페이지 www.lotte.com 내에서 고객의 포인트 후원과 정기후원 안내를 펼치고 있으며, 소아암 어린이에게 희망 전달을 위한 게시판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소아암 어린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주)롯데닷컴의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지속적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소아·청소년암 환자관리

지은이 :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 전국 대학병원 36명의 소아혈액종양 교수 집필
대표저자 - 최용목·안효섭·황태주·이건수·김학기

소개의 글

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소아암은 70-80%의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소아암 아동들의 의학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치료종결 후 사회적응에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 발간된 소아암 관련 책자들 중에는 소아암 치료에서부터 사후관리, 심리·정서적 접근까지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책은 전무하다 할 수 있다.

처음 소아암 진단을 받으면 모든 것이 막막하고 너무도 아는 것이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이런 보호자들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국내 36명의 혈액종양교수님들이 모여 치료 전 부터 치료 종결 후 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책으로 담아내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질병과 관련된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하여 초기 진단 받은 보호자, 소아암에 대해 알고 싶은 일반인, 의과대학 학생뿐 아니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학교교사 모두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산 우체국 헌사랑의 집 박미주 사회복지사〉

책의 구성

1부 - 치료 전 환자관리

- 소아암의 개요
- 치료 전 관리
- 평가 및 기본 술기

2부 - 치료 중 환자관리

- 응급상황
- 감 염
- 조절기능장애
- 치료 부작용
- 기타

3부 - 치료종결 후 환자관리

- 추적 관찰 지침
- 항암제의 후기 부작용
- 방사선 치료의 후기 부작용
- 재활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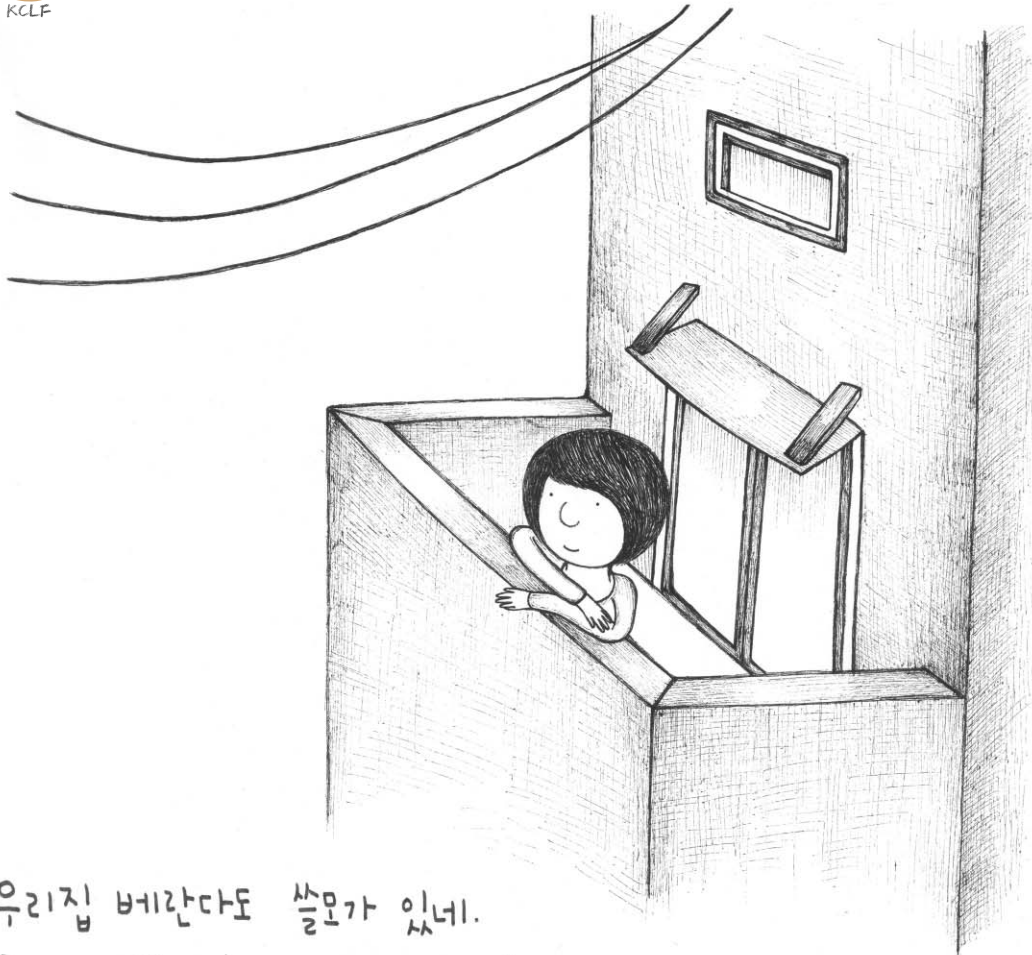
4부 - 조혈모세포이식 환자관리

- 조혈모세포이식의 적응증
- 조혈모세포 공여자 검색
- 조혈모세포이식 후 환자관리
-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발

5부 - 말기암 환자관리

- 개론 및 정의
- 완화의료 관리 팀의 구성과 역할
- 완화의료의 원칙

"소아암 환자는 의사들만의 치료로는 만족한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성장기에 있는 시기이기에 점차 훌륭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가능한 한 정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비록 치료종이라 하더라도 교육 역시 등한시할 수 없다." - 머리말 중에서 -



우리집 베란다도 쓸모가 있네.

돗자리 깔아 놓고 고기도 먹고 술도 마시고,

꼬마들 놀러와서 미니플장도 만들어주고,

빨래도 널고, 조카 유모차도 끌어주고...

몇년 동안 베란다에 나간 적이 거의 없었는데, 올 여름 아주 기특했어.

가을엔 무얼 좀 키워볼까 싶기도 하고... 상추나 토마토나...

글·그림 소복이
sobogi.net

한뜻 후원자 소식

신규 후원자 소개 (2007. 6. 1 ~ 2007. 8. 31 / 가나다 순입니다)

김재희 김학진 노현주 명향자 박정필 배지훈 서홍돈 송미숙
신준걸 이노우 이연화 이원식 이종덕 천용희

▶ 2007년 8월 31일까지 854분이 한뜻후원자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만세 후원자 소식

신규 후원자 소개 (2007. 6. 1 ~ 2007. 8. 31 / 가나다 순입니다)

김형순 노현미 박주리 박준우 이명환 이지연 장진수 전진배

▶ 2007년 8월 31일까지 1,890분이 만세후원자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새로 신청해 주신 후원자님, 이미 후원자가 되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후원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은행 : 001-01-2353-890
기업은행 : 090-000260-04-015
농협 : 029-01-176943
우체국 : 012989-01-003327
신한은행 : 310-03-0002396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후원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해주고 계시는
만세후원자님께서는 편리한 CMS로 후원금을 납부하세요!

- * CMS방식이란,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하시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재단 사무국으로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매월 일정한 날짜(5일)에 알려주신 통장에서 약정하신 후원금이 출금되는 방식입니다.
- *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연말정산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후원자님께 발송됩니다.

 알려 드립니다!

1.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후원금 납입 영수증 발급 안내

후원금을 CMS방법으로 납입해 주시는 후원자님께서도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자동 발급되어 후원자님께 발송되며, 자동이체나 지로로 납입해 주시는 후원자님께서도 재단으로 연락주시면 바로 발송해 드립니다.

2. 재단에서 정기적으로 보내드리는 소식지와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주소변경 및 연락처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재단으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주소변경을 하지 않으셔서 매년 보내드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후원금 영수증을 필요한 시기에 받지 못하시는 후원자님들이 많으십니다. 평소 우편물 수령이 잘 되지 않은 경우나 주소변경 사항이 있으시면 재단으로 전화를 주거나 이메일로 변경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2-766-7671~3 / E-mail : cancer@kclf.org)

천사백 이식비 지원 환아

천사백후원금을 지원받는 어린이들을 소개합니다.(2007. 6 ~ 2007. 8)



이은혜 - 1,000만원
(재생불량성빈혈/서울대학교병원/경기)



박재훈 - 2,000만원
(재생불량성빈혈/부산백병원/경남)



전대열 - 2,000만원
(판코니빈혈/여의도성모병원/부산)



문효빈 - 2,000만원
(판코니빈혈/여의도성모병원/인천)



김배균 - 2,000만원
(유양육종/원자력병원/서울)



전하원 - 2,000만원
(금성골수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인천)



천사백운동 참여현황 (2007년 8월 31일 현재)

참여후원자 : 3,216명 구좌수 : 17,674구좌

천사같은 이웃을 소개합니다. (2007. 6. 1 ~ 2007. 8. 31까지 처음으로 후원금을 입금하신 분들입니다.)

경남은행 CMS	전해자	국민은행 CMS	박미선, 변기임, 윤효주, 홍정희
기업은행 CMS	서재정	농협 CMS	김동주, 박정열, 이재모, 채정병, 허정희, 홍종춘
대구은행 CMS	김수선	새마을금고 CMS	허영화
신한은행 CMS	계영희, 김경순, 김미정, 김하영, 장길수	씨티은행 CMS	박재희
외환은행 CMS	정대희	우리은행 CMS	윤소윤, 이길원, 이영수
		우체국 CMS	김소연, 김은지

후원 계좌 안내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경남은행	514-07-0175564	광주은행	200-107-315315	국민은행	031-01-0414-356	기업은행	090-000260-04-022
농협	029-01-170940	대구은행	004-05-179828-001	부산은행	070-01-021379-8	외환은행	141-22-00799-6
우리은행	112-04-112571	우체국	012989-01-003313	제일은행	225-20-385050	신한은행	367-01-192434
하나은행	144-121835-00105	한미은행	100-59711-251				

★ 천사백 후원자님께서도 후원금을 편리한 CMS로 납부하세요!

CMS방식이란,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하시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재단 사무국으로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매월 일정한 날짜(15일)에 알려주신 통장에서 약정하신 후원금이 출금되는 방식입니다.

★ CMS를 신청하시면 이런점들이 좋아요!

1. 매년 인상되는 지로수수료와 우편발송요금이 절약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실수 있습니다.
2. CMS는 자동이체 기간을 별도로 연장하실 필요가 없으며, 해지 및 변경을 원하시는 후원자님께서 재단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이메일로 변경하실 정보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02-766-7671~3/E-mail:cancer@kclf.org
3.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연말정산용 후원금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후원자님께 발송됩니다.



사랑의 모음터

▶ 사랑의 헌혈증서 (2007. 6. 1 ~ 2007. 8. 31)

강원체신청 (206)	구름물고기 (140)	권진욱 (3)
김삼태 (11)	김창호 (1)	김혜인 (2)
명동손국수 (44)	박순이 (146)	전남체신청 (391)
조준희 (3)	화순우체국 (28)	

*()는 기증하신 헌혈증 매수입니다.

▶ 특별 후원금

2007년 6월	한창우 3,000,000	남궁주 500,000
7월	장은경 100,000	서울한강로타리클럽 1,090,317
	화순우체국 100,000	전남체신청 300,000
8월	김지연 1,000,000	임성순 200,000

▶ 후원물품 (2007. 6. 1 ~ 2007. 8. 31)

63시티	생월잔치	강중빈父	전복	곽기백	음료수	김세림	양념류
노현용	과일	빨간모자	생월잔치	서성혁	생선	이재형母	쌀,깨

▶ 물품 후원 안내

우리 재단은 비품구입비를 절약하기 위해 사무국과 재단이 운영하는 쉼터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 또는 무상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기증품 하나하나는 큰 도움이 됩니다.

2007년 가을호는  SBS 에서 제작지원해주셨습니다.